멍냥뉴스
동네방네

구독자 무료 가이드 · 2권

들이기 전에 읽는 펫테크 가이드

자동급식기부터 GPS 트래커까지, 우리 집에 맞는 기기를 고르고 안전하게 쓰는 법.
인쇄해서 쓰는 관리 기록지와 1년 비용 계산표를 함께 담았어요.

포근발자국 · 멍냥뉴스 동네방네 · dogdo209.com · 2026년판

시작하며

이 가이드 활용법

이 책은 무엇을 사라고 권하는 책이 아니에요. 모델과 가격은 해마다 바뀌니까요. 오래 남는 건 확인하는 법이에요.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지, 어떤 표시를 봐야 하는지, 강아지가 어떻게 익숙해지게 할지를 담았어요.

공통

1 들이기 전 10분 점검

+ 인쇄해서 쓰는 기록지

혼자 있는 시간

2 자동급식기

3 스마트 급수기

4 홈캠(펫캠)

5 자동 장난감·퍼즐 토이

6 스마트 펫도어

건강·실종 대비

7 GPS 트래커

8 활동량 트래커·헬스케어 웨어러블

위생·체온·놀이

9 냉감·온열 매트

10 드라이룸

11 실내 배변판

12 자동 볼 런처

세 가지 원칙

1. **기능보다 기본기.** 화려한 앱 기능보다 소음, 세척 편의, 정전 대비 같은 기본이 매일의 만족도를 정해요.
2. **집에서 천천히 익히기.** 기기를 거부하는 강아지 대부분은 첫 경험이 갑작스러웠던 경우예요. 전원을 끈 채 며칠 두고, 간식과 함께 짧게 시작하세요.
3. **기기는 보호자의 눈을 돕는 도구일 뿐, 대신하지 못해요.** 홈캠, 급식기, 트래커가 있어도 강아지를 오래 혼자 두거나 매일 살피는 일을 건너뛰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 **꼭 읽어 주세요**
>
> 이 가이드는 보호자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저희는 제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협찬받지 않아요. 제품 사양은 제조사와 모델마다 다르니 구매 전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정보의 출처

각 장은 포근발자국(멍냥뉴스 동네방네)의 펫테크·용품 글 12편을 다시 정리한 것이에요. 홈캠 보안과 동물등록처럼 공공기관 안내가 있는 내용은 그 안내를 따랐어요. 참고한 자료는 마지막 쪽에 모아 두었어요.

최신 소식 받기

지원금, 법·제도 변경, 안전 경보처럼 바뀌는 소식은 **dogdo209.com**에 날짜와 출처를 밝혀 올리고, 구독자에게는 메일로 보내드려요. 1권 『강아지 관리 가이드북』도 함께 챙겨 보세요.

들이기 전 10분 점검

펫테크 기기를 들였다가 후회하는 이유는 대개 비슷해요. 생각보다 비싼 구독료, 와이파이가 끊기면 멈추는 기능, 고장 났는데 맡길 곳이 없는 직구 제품이에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10분만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요?

- ☐ **해결하려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퇴근이 늦어 저녁밥이 두 시간씩 밀린다"처럼 구체적이면 필요한 기능이 바로 보여요.
- ☐ **기기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산책 시간 조정, 돌봄 서비스, 가족 간 역할 분담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 ☐ **강아지 성향을 고려하세요.** 소리에 예민한 아이는 모터 소리, 잘 씹는 아이는 전선과 작은 부품부터 걱정해야 해요.

돈: 첫 결제보다 1년 총비용

- ☐ **구독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홈캠 클라우드 저장, GPS 통신, 건강 분석 기능은 월 이용료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 ☐ **구독을 해지하면 어떤 기능이 멈추는지 확인하세요.** 기본 기능까지 막히는 제품도 있어요.
- ☐ **소모품 비용도 더하세요.** 필터, 배변 롤, 패드, 배터리 같은 것들이에요.
- ☐ 뒤쪽의 **1년 비용 계산표**에 적어 보면 제품 두세 개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전기와 인터넷이 끊기면?

- ☐ **정전 시 작동:** 배터리 백업이 있는지, 정전 후 예약 설정이 지워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급식기와 펫도어에서 특히 중요해요.
- ☐ **와이파이가 끊기면?** 앱이 없어도 본체 버튼과 저장된 일정만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 **설치할 자리의 와이파이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쓰기 괜찮은 제품인가요?

- ☐ **KC 마크:** 국내 정식 유통 전기·전자 제품은 KC 인증 표시(무선 기기는 전파 적합성평가 포함)가 있어야 해요. 해외 직구 제품에는 없을 수 있어요.
- ☐ **한국어 앱과 국내 A/S:** 앱이 영어만 지원하면 알림을 놓치기 쉽고, 국내 유통사가 없으면 고장 때 해외로 보내야 할 수 있어요.
- ☐ **보증 기간과 반품 조건**을 구매 전에 읽어 두세요.

> **포근 팁**
>
> 기기를 들이면 바로 뒤쪽 **펫테크 관리 기록지**에 구입일, 필터·배터리 교체 주기, 구독 갱신일, A/S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6개월 뒤 "이거 언제 바꿨더라?" 하는 일이 사라져요.

자동급식기

늦은 퇴근이나 짧은 외출에도 밥때를 지켜 주는 기기예요.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앱 기능이 아니라 정전 대비예요. 정전으로 급여가 멈추면 들인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체구에 맞추기

	소형견	대형견
사료통 용량	2~4L면 충분해요. 너무 크면 자리만 차지해요.	5~7L 이상을 권해요.
급여량 단위	1스푼 단위로 미세하게 조절돼야 해요.	한 번에 여러 컵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해요.
놓을 자리	좁은 곳에도 둘 수 있어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해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 ] **배터리 백업:** 정전 시 급여가 멈추거나 일정이 초기화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이에요.
- [ ] **분리 세척:** 사료통과 배출구를 떼어 씻을 수 있어야 해요. 사료 가루가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니 최소 주 1회는 완전히 비우고 닦으세요.
- [ ] **사료 종류:** 일반형은 건사료 전용이에요. 습식·생식은 냉장형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냉장 유지 시간이 몇 시간 수준이에요.
- [ ] **밀폐력:** 틈이 있으면 여름에 개미가 꼬여요.
- [ ] **배출 소음:** 예민한 아이는 소리에 놀라 밥그릇을 피할 수 있어요. 아파트라면 새벽 급여 소음도 생각하세요.
- [ ] **앱 연동은 선택이에요.** 원격 급여와 급여 완료 알림은 외출이 잦은 집에 편리하지만, 와이파이가 불안정하면 오프라인에서 정확히 도는 기본형이 나아요.

익숙해지게 하기

1. 처음 며칠은 손 급여와 급식기를 함께 써요.
2. 기존 밥 자리 가까이에 두고, 처음 작동할 때는 곁에서 칭찬해 주세요.
3. 보호자가 있을 때 몇 번 작동시켜 반응을 확인한 뒤 외출 시간에 맞춰요.
4. 익숙해진 뒤에도 하루 한 끼는 직접 주며 식욕과 컨디션을 살펴요.

> **여러 마리를 키운다면**
>
> 한 아이가 다른 아이 몫까지 먹기 쉬워요. 마리당 급식기를 따로 두거나 먹는 공간을 나눠 주세요.

>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세요**
>
> 급식기는 밥을 내줄 뿐 먹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사료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하루 넘게 식욕이 없거나, 구토·설사가 함께 보이면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강아지 자동급식기 추천 가이드 · dogdo209.com/best-automatic-dog-feeders-guide

스마트 급수기(정수기)

물그릇에 고인 물은 털과 먼지가 가라앉고 여름엔 미지근해져요. 급수기는 물을 계속 흐르게 하고 필터로 걸러 줘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더 자주 마시기도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렇지는 않아요.

재질 고르기

재질	장점	알아 둘 점
스테인리스(304)	흠집이 적고 세균이 덜 자라 위생 관리가 쉬워요.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세라믹	묵직해서 잘 밀리지 않아요.	무겁고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어요.
BPA 프리 플라스틱	가볍고 저렴해요.	긁힌 자리에 세균이 자리 잡기 쉬워 자주 바꿔야 해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 **모터 소음:** 강아지는 사람보다 소리에 예민해요. 제품의 dB 표시를 보고, 가능하면 후기 영상으로 실제 소리를 들어 보세요. 침실 근처라면 저소음 모델을 고르세요.
- ☐ **필터 교체 주기와 가격:** 보통 2~4주마다 바꿔요. 주기가 짧을수록 유지비가 늘어나요.
- ☐ **분해 세척:** 펌프까지 쉽게 분리되는지 확인하세요. 펌프에 물때가 끼면 소리가 커지고 물이 덜 나와요.
- ☐ **앱 기능은 선택이에요.** 음수량 기록, 필터 교체 알림이 편하긴 하지만 달력에 교체일을 적어도 충분해요.
- ☐ **소비전력:** 대부분 낮은 편이지만 제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관리 습관

- ☐ 물은 매일 갈고, 본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어요(제조사 안내 주기를 따르세요).
- ☐ **겨울에도 청소 주기를 늘리지 마세요.** 바닥 난방으로 물이 따뜻해지면 세균이 빨리 늘어요.
- ☐ 전선은 강아지 동선 밖으로 빼고, 씹는 아이라면 전선 커버를 씌워요.
- ☐ 정전이 잦은 집이라면 옆에 일반 물그릇을 하나 더 두세요.
- ☐ 이사하거나 오래 쓰지 않았다면 분해 세척하고 필터를 새로 끼운 뒤 다시 써요.

익숙해지게 하기

처음 며칠은 원래 물그릇과 나란히 두고 강아지가 고르게 하세요. 물그릇을 갑자기 치우면 물을 덜 마실 수 있어요.

>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세요**
>
> 평소보다 물을 눈에 띄게 많이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앱의 음수량 기록은 이런 변화를 알아채는 데 도움이 돼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강아지 스마트 정수기·급수기 고르는 법 · dogdo209.com/dog-smart-water-fountain-buying-guide

홈캠(펫캠)

빈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 주는 기기예요. 분리불안의 초기 신호나 구토·낙상 같은 사고를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다만 카메라는 집 안을 찍는 기기라서 보안 설정까지 해야 끝이에요.

먼저 볼 기능

기능	왜 필요한가	우선순위
실시간 영상	지금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요.	기본
양방향 음성	짖을 때 목소리로 진정시킬 수 있어요.	높음
야간 화질	불 꺼진 저녁에도 보여야 해요. 낮에만 선명한 저가형이 많아요.	어두운 집이면 높음
짖음·움직임 알림	화면을 계속 보지 않아도 돼요.	구독이 필요할 수 있음
회전(팬·틸트)	사각지대를 줄여요.	넓은 집이면 유용
간식 분사·레이저	재미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고려

대부분의 집은 **실시간 영상과 양방향 음성**이면 충분해요. 간식 분사에 너무 기대면 하루 종일 카메라만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기도 해요.

저장 방식과 비용

- ☐ **클라우드 저장:** 무료 기간이 끝나면 월 구독료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저장 기간과 요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 ☐ **메모리카드(microSD) 저장:**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요.

설치할 때

- ☐ 소파, 켄넬, 창가처럼 아이가 자주 머무는 곳을 비추고, 그 자리의 와이파이 신호를 먼저 확인해요.
- ☐ 화장실, 옷장처럼 가족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곳은 피해요.
- ☐ 이웃집 창문이나 공용 복도가 찍히지 않는지 설치 후 화면으로 꼭 확인하세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 ☐ 카메라를 무서워하면 전원을 끈 채 며칠 두었다가 짧게 켜 보세요.

보안 수칙: 오늘 바로 하세요

정부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수칙을 지키라고 안내해요(관계부처 합동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2024).

-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를 **복잡한 비밀번호**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앱과 카메라의 **펌웨어 업데이트** 설치하기
- 집에 있을 때처럼 **쓰지 않을 때는 카메라 끄기**

홈캠은 분리불안을 고치지 못해요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도구예요. 짖음이나 하울링, 문 긁기가 반복된다면 5장의 내용과 함께 훈련이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반려동물 홈캠(펫캠) 고르는 법 · dogdo209.com/pet-home-camera-buying-guide

자동 장난감·퍼즐 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덜 지루하게 만들어 주는 보조 도구예요. 분리불안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외출 직후의 긴장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자동식과 수동식

	자동식	수동식(퍼즐·노즈워크)
작동	정해진 시간마다 스스로 움직이거나 간식을 내보내요.	강아지가 굴리고 밀어야 간식이 나와요.
보호자 부재 시	먼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어요.	푸는 법을 어느 정도 익혀야 해요.
관리	배터리·충전이 필요해요.	세척만 하면 돼요.
소음	모터·바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조용한 편이에요.
비용	높은 편	낮은 편

고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 [ ] **난이도:** 쉬운 단계로 시작해 성공 경험을 쌓은 뒤 높여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포기해요.
- [ ] **크기와 안전:**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없어야 해요. 처음 며칠은 곁에서 지켜보세요.
- [ ] **소음과 진동:** 딱딱한 바닥에서는 아랫집까지 울릴 수 있어요. 러그나 매트 위에서 쓰세요.
- [ ] **세척:** 간식 기름과 냄새가 남아요. 분해 세척이 번거로우면 결국 안 쓰게 돼요.
- [ ] **다양성:** 핥는 매트, 굴리는 퍼즐, 채우는 장난감처럼 방식이 다른 것을 번갈아 주면 흥미가 오래가요.

익숙해지게 하기

1. 전원을 끈 채 며칠 두어 냄새와 모양에 익숙해지게 해요.
2. 입구가 넓고 간식이 쉽게 나오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냄새가 강한 간식을 입구에 살짝 묻혀도 좋아요.
3. 보호자가 있을 때 몇 번 성공시킨 뒤 외출할 때 줘요.
4. 회차별 난이도, 혼자 푼 시간, 반응(흥미·좌절)을 적어 두면 난이도를 맞추기 쉬워요.

> **간식도 하루 먹는 양이에요**
> 퍼즐에 넣는 간식은 하루 급여량에 포함하세요. 평소 사료 일부를 덜어 넣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 **장난감으로 해결되지 않는 신호**
> 외출할 때마다 계속 짖거나 울부짖고, 문이나 창을 긁고, 집 안에 배변 실수를 하거나 자기 몸을 핥고 물어뜯는다면 단계적인 둔감화 훈련이 필요해요. 증상이 심하면 수의사나 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장시간 혼자 두는 날이 잦다면 돌봄 서비스도 고려해 주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분리불안 완화용 자동 장난감·퍼즐 토이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 dogdo209.com/dog-automatic-puzzle-toy-separation-anxiety

스마트 펫도어

일반 펫 플랩은 누구나 밀고 들어올 수 있고 찬바람도 새요. 스마트 펫도어는 등록된 아이만 열어 주고 닫히면 잠겨요. 다만 인식 기술보다 먼저 볼 것은 문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예요.

인식 방식 비교

방식	장점	알아 둘 점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목걸이나 태그가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 등록칩을 그 제품이 읽을 수 있는지 판매처에 꼭 확인하세요.
RFID 목걸이 태그	설정이 간단해요.	목걸이가 빠지거나 태그를 잃으면 문이 안 열려요.
목걸이형 키(초음파 등)	칩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부피가 있어 소형견에게 부담일 수 있어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 ] **크기:** 몸무게가 아니라 **어깨너비**를 재세요. 어깨너비보다 넉넉한(보통 5cm 이상) 문을 골라야 몸통이 걸리지 않아요.
- [ ] **보안 구조:**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오가는 곳이라면 한 겹 플랩보다 모터로 완전히 닫히는 슬라이딩형이 나아요. 억지로 밀어서 잠금을 여는 사례도 있어요.
- [ ] **단열:** 두 겹 플랩이나 완전 밀폐형이 열 손실을 줄여요.
- [ ] **정전 시 동작:** 콘센트형은 정전 때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터리형은 교체 주기를 기록지에 적어 두세요.
- [ ] **설치 위치와 두께:** 현관문·방충망 부착형은 셀프 설치가 쉽고, 벽 시공형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문이나 벽 두께가 호환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 ] **앱 기능:** 출입 기록과 시간대별 잠금이 가능하지만 와이파이 허브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인터넷이 끊기면 일정 기능이 멈출 수 있어요.
- [ ] **등록 가능 마릿수:** 여러 마리라면 최대 몇 마리까지 등록되는지 보세요.

> **아파트·전월세라면 먼저 물어보세요**
> 방충망이나 창호, 현관문을 바꾸는 일은 관리사무소 규정이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설치 전에 확인하세요.

설치 후 점검

- [ ] 등록이 끝나면 표시등이나 소리로 알려 줘요. 그래도 실제로 아이가 다가갔을 때 열리는지 **여러 번** 시험해 보세요.
- [ ] 밤에는 잠금 시간대를 정해 두면 야간 사고와 다른 동물의 출입을 줄일 수 있어요.
- [ ] 문 밖 마당이 안전한지(울타리, 독성 식물, 도로)도 함께 점검하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우리 강아지만 드나드는 문, 스마트 펫도어 이야기 · dogdo209.com/smart-pet-door-guide

GPS 트래커

강아지가 사라지는 곳은 대개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캠핑장, 휴게소, 친척 집 마당 같은 곳이죠. 트래커는 이탈을 막아 주지는 못하지만,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게 도와줘요.

방식별 차이

	블루투스 태그형	셀룰러(통신) GPS형
위치 확인	주변 스마트폰이 신호를 잡을 때만 갱신돼요.	통신이 되는 곳이면 스스로 실시간 위치를 보내요.
안전구역 알림	대부분 없어요.	정해 둔 범위를 벗어나면 알려 줘요.
비용	구독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월 이용료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약점	사람이 드문 산, 들판에서는 위치가 멈춰요.	통신 음영 지역과 충전 관리가 약점이에요.
잘 맞는 집	동네·단지 산책 위주	탈출 이력이 있거나 등산·캠핑이 잦은 집

실종 대비가 목적이라면 실시간 위치를 받을 수 있는 셀룰러형이 맞아요. 두 방식을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하이브리드형도 있어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 **실제 배터리 시간:** 위치 갱신을 자주 하고 알림을 많이 켤수록 광고된 시간보다 빨리 닳아요.
- ☐ **무게:** 말티즈, 푸들, 비숑 같은 소형견은 무거우면 움직임을 불편해해요.
- ☐ **방수:** 비와 물웅덩이를 견딜 생활 방수는 기본으로 확인하세요.
- ☐ **통신 범위:** 자주 가는 산이나 캠핑장에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 **1년 총비용:** 기기값에 이용료 12개월을 더해서 비교하세요.

안전하게 착용하기

- ☐ 목줄을 거는 D링과 다른 고리에 달아 헷갈리지 않게 해요.
- ☐ 짧은 실내 착용부터 시작해 간식, 산책과 연결해 주세요.
- ☐ 며칠간 목에 자국이나 붉은 곳이 없는지 보고, 밤에는 벗겨 주세요.
- ☐ 평소엔 안전구역 알림 위주로 쓰고, 여행지에서만 실시간 추적을 켜면 배터리와 알림 피로가 줄어요.

> **트래커와 동물등록은 서로 대신할 수 없어요**
>
> 동물등록 칩은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아요. 보호소나 동물병원이 칩을 읽어 보호자를 찾는 용도예요. 그래서 칩에 연결된 정보가 최신이어야 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또는 시·군·구청).

> **잃어버렸다면, 첫 한 시간**
>
> ① 트래커 위치 확인과 주변 수색 ② 잃어버린 곳에 평소 쓰던 물건 두기 ③ 동물등록 분실 신고 ④ 가까운 보호소와 지자체에 연락 ⑤ 사진과 시간·장소를 동네 커뮤니티에 올리기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강아지 GPS 트래커 고르는 법 · dogdo209.com/dog-gps-tracker-buying-guide

활동량 트래커와 헬스케어 웨어러블

걸음 수와 수면을 재는 트래커, 심박수와 호흡수까지 재는 웨어러블이 있어요. 둘 다 숫자 하나하나보다 평소와 달라진 흐름을 보여 줄 때 쓸모가 커요.

무엇이 다른가요?

	활동량·수면 트래커	헬스케어 웨어러블
재는 것	걸음 수, 활동 시간, 대략적 소모 칼로리, 수면 패턴	심박수, 심박변이도, 호흡수, 체온, 수면 단계
잘 맞는 아이	다이어트 중, 관절 관리로 운동량 조절이 필요한 아이	노령견, 심장·호흡기 등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
비용	구독 없는 제품도 많아요.	월 구독료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 둘 점	작은 견종이나 걸음이 독특한 아이는 오차가 커요.	평소 패턴을 익히는 기간(보통 몇 주)이 지나야 이상 알림이 의미 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잘 노는 건강한 아이라면 없어도 괜찮아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 **목적:** 활동·수면 추세만 볼 건지, 건강 신호까지 볼 건지 정하세요.
- ☐ **무게:** 8kg 이하 소형견은 무게와 부피를 꼭 확인하고, 하네스 결합형도 살펴보세요.
- ☐ **충전 주기:** 3~4일마다 충전하는 제품부터 몇 달 가는 제품까지 다양해요. 충전이 잦으면 기록에 빈칸이 생겨요.
- ☐ **GPS 겸용 여부:** 편리하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고 무거워져요. 탈출이 걱정이면 겸용, 건강 추세만 보려면 전용 제품이 나아요.
- ☐ **구독 해지 시 남는 기능:** 기기값만 내면 고급 분석이 빠질 수 있어요.
- ☐ **수의사 공유:** 진료에 쓸 수 있는 리포트를 내보낼 수 있는지 보세요. 다니는 병원에 어떤 데이터가 도움 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 ☐ **해외 제품:** 한국어 앱과 국내 A/S 창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잘 쓰는 법

- ☐ 마리당 한 대가 원칙이에요. 돌려 쓰면 데이터가 섞여요.
- ☐ 장모종은 목 주변 털을 정리해야 센서가 제대로 닿아요.
- ☐ 완전 방수가 아니면 수영과 목욕 때는 벗겨요.
- ☐ 정기검진 때 최근 몇 주의 그래프를 캡처해 가면 짧은 진료에도 도움이 돼요.

>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세요**
>
> 대부분의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알림은 진단이 아니에요. 다만 며칠 사이 활동량이 뚜렷이 줄거나, 자다가 자주 깨고 뒤척이거나, 이상 알림이 반복되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수의사에게 데이터와 함께 보여 주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강아지 활동량·수면 트래커, 정말 필요할까 · dogdo209.com/dog-activity-sleep-tracker-guide
강아지 헬스케어 웨어러블, 정말 심박수까지 잴 수 있나요 · dogdo209.com/dog-health-wearable-guide

냉감·온열 매트

강아지는 땀 대신 주로 헐떡여서 열을 식혀요. 그래서 더위에 약하고, 단두종, 이중모, 비만이거나 심장·호흡기가 약한 아이는 더 그래요. 겨울엔 찬 바닥이 관절을 굳게 만들어 노령견과 소형견이 힘들어해요.

종류별 원리

종류	작동 방식	잘 맞는 상황
압력 반응형 냉감 매트	몸무게가 실리면 젤이 열을 흡수해요. 전기가 필요 없어요.	거실에 두고 낮잠 잘 때
냉동 인서트형 냉감 매트	얼린 팩을 넣어 써요.	폭염 때 짧고 강하게 식힐 때
보온(반사) 매트	아이 체온을 되돌려 줘요. 전선이 없어요.	잘 씹는 아이, 가벼운 추위
전기 온열 매트	발열체로 계속 데워요.	노령견, 관절이 약한 아이, 추운 베란다

냉감 매트는 이미 그늘지거나 시원한 곳을 조금 더 편하게 해 줄 뿐이에요. 뜨거운 차 안이나 땡볕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전기 온열 매트 안전 점검

- [ ] **KC 마크**가 있는 반려동물용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사람용 전기매트는 강아지가 피하지 못할 때 너무 뜨거울 수 있어요.
- [ ] **자동 온도 차단**과 여러 단계의 온도 조절, **타이머**가 있는지 보세요.
- [ ] **튼튼한 전선 피복과 보호 커버**가 있고, 전선이 아이 입에 닿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 ] 매트 밖으로 **피할 공간**을 남겨 두세요. 문 닫힌 켄넬 바닥 전체에 깔지 마세요.
- [ ] 아이가 쉴 때만 켜고, 집을 비울 때는 끄거나 타이머를 쓰세요.

고를 때 함께 볼 것

- [ ] **씹는 습관:** 젤이 새면 위생 문제가 생겨요. 질긴 원단이나 비젤형, 무선 제품을 고려하세요.
- [ ] **세탁:** 커버가 분리 세탁되는지, 온열 매트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 [ ] **한국 집 환경:** 바닥 난방이 되는 집은 겨울에도 두툼한 방석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난방이 약한 베란다나 창고에 잠자리가 있다면 온열 매트가 더 필요해요.

매트를 거부하면 평소 쓰던 담요 위에 겹쳐 두고, 매트 위에서 간식을 주며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계절이 끝나면 완전히 말려서 보관해야 성능이 유지돼요.

>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세요**
>
> **열사병 신호:** 평소보다 심한 헐떡임, 진한 침, 새빨갛거나 창백한 잇몸, 비틀거림, 구토. 서늘한 곳으로 옮겨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시고 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 **저온화상:** 같은 자리가 오래 눌리면 낮은 온도에도 생기고 털에 가려 늦게 보여요. 털을 헤쳐 피부를 가끔 확인하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강아지 냉감·온열 매트, 고를 때 확인할 6가지 · dogdo209.com/dog-cooling-heating-mat-guide

드라이룸

목욕보다 말리기가 더 힘들다는 보호자가 많아요. 이중모나 장모종은 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죠. 드라이룸은 보호자 손을 덜어 주지만, 따뜻한 바람이 도는 닫힌 공간이라 안전 기능을 꼭 봐야 해요.

건조 방식 비교

	드라이룸	핸드 드라이어	자연 건조
시간	비교적 짧아요.	털 길이와 양에 따라 달라요.	가장 오래 걸려요.
보호자 손	거의 안 가요. 상태 확인만 해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해요.	거의 안 가요.
소음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가까이서 크게 느껴요.	없어요.
알아 둘 점	초기 비용과 공간이 필요해요.	예민한 아이는 싫어해요.	장모종이나 습한 계절엔 피부 트러블 위험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필요한가요?

- [ ] 여러 마리를 키우거나 집에서 자주 씻긴다면 도움이 커요.
- [ ] 장모·이중모는 속털까지 고르게 말리기 좋아요. 단모 소형견은 수건과 짧은 드라이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 [ ] 좁은 공간을 무서워하는 아이는 적응 시간이 꽤 걸려요.
- [ ] 놓을 자리와 예산이 빠듯하면 핸드 드라이어가 현실적이에요.

안전 기능 점검

- [ ] **온도 센서와 자동 차단:** 센서가 없거나 고장 난 채 고온이 이어지면 화상이나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 ] **타이머:** 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져야 해요.
- [ ] **환기와 필터:** 필터가 막히면 바람이 약해지고 시간이 길어져요. 쓸 때마다 털을 털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세요.
- [ ] **KC 마크**가 있는 국내 정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익숙해지게 하기

1. 전원을 끈 채 문을 열어 두고, 안에서 간식을 먹게 해요.
2. 약한 바람으로 짧게 켜고 점점 시간을 늘려요. 처음엔 문을 살짝 열어 둬도 좋아요.
3. 켄넬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아이는 며칠에 걸쳐 천천히 진행해요.

> **포근 팁**
> 넣기 전에 수건으로 물기를 최대한 닦고, 엉킨 털은 미리 빗어 주세요. 엉킨 속털은 바람이 닿아도 잘 마르지 않아요.

>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 처음 몇 번은 꼭 곁에 있으면서 헐떡임, 침 흘림, 안절부절못함을 살펴요. 노령견, 어린 강아지,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는 쓰기 전에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반려동물 드라이룸, 핸드 드라이어와 뭐가 다를까요 · dogdo209.com/pet-dryer-box-vs-hand-dryer-guide

실내 배변판

고층 아파트, 예방접종이 끝나기 전의 아기 강아지, 늦은 퇴근, 다리가 약해진 노령견. 실내 배변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해요. 배변량이 적은 소형견에게 특히 잘 맞아요. 성패를 가르는 건 기기 성능보다 냄새 관리예요.

방식별 비교

방식	장점	알아 둘 점
패드형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매번 갈아야 해서 소모품 비용이 계속 들어요.
인조 잔디형	바깥 배변 느낌과 비슷해 실외 배변에 익숙한 아이가 적응하기 쉬워요. 씻어서 다시 써요.	자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배요.
자동 세척(롤)형	소변을 감지해 시트를 감아 처리해서 냄새 관리가 편해요.	기기값이 높고 롤 교체 비용이 따로 들어요. 전원이 필요해요.

고를 때 확인할 것

- [ ] **크기:** 아이 몸보다 넉넉해야 빗나가지 않아요. 대부분 소형견 기준이라 큰 아이는 크기와 흡수력을 꼭 보세요.
- [ ] **놓을 자리:** 물걸레질하기 쉬운 바닥이 좋아요. 좁은 집이면 벽면형도 있어요.
- [ ] **세척·교체가 번거롭지 않은지** 직접 상상해 보세요. 귀찮으면 결국 냄새가 나요.
- [ ] **바깥 배변과 함께 한다면** 두 장소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주세요.

냄새 관리

- [ ] 배변은 보이는 즉시 치워요. 오래 둘수록 냄새와 세균이 빠르게 늘어요.
- [ ] 활성탄 패드나 탈취 기능은 도움이 되지만, 치우고 닦는 습관을 대신하지 못해요.

익숙해지게 하기

1. 자고 일어난 직후, 밥 먹은 직후처럼 급해 보일 때 배변판으로 데려가요.
2. 성공하면 바로 간식과 칭찬을 줘요.
3. 처음엔 평소 나가려던 자리(현관 근처 등) 가까이에 두면 빨리 익혀요.
4. 실수해도 혼내지 말고 조용히 치운 뒤 다음 기회에 다시 유도해요. 자리 잡는 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려요.

> **배변판은 산책을 대신하지 않아요**
> 산책은 냄새 맡기, 운동, 사회화를 위한 시간이에요. 배변판은 날씨나 일정 때문에 못 나갈 때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세요**
>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실수를 반복하거나, 소변을 자주 조금씩 보거나, 색이 평소와 다르면 방광염 같은 건강 문제일 수 있어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소형견 실내용 스마트 화장실·자동 배변판 고르는 법 · dogdo209.com/small-dog-smart-indoor-potty-guide

자동 볼 런처

공을 넣으면 몇 초 뒤 알아서 던져 주는 기계예요. 보호자 팔은 편해지지만, 사람보다 빠르고 끝없이 던져 줘서 강아지가 지칠 줄 모르고 뛰게 돼요. 거리와 시간을 정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공간에 맞춰 설정하기

공간	설정 기준
거실·방	가장 짧은 거리(2~4m 정도)로 시작해요. 벽이나 가구에 튕기는 공도 생각하세요.
마당·공터	10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 뒤 거리를 늘려요.
아파트	테니스공 대신 조용한 고무공을 고려하세요. 층간소음이 줄어요.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 ] **공 크기:** 대부분 테니스공 크기에 맞춰 나와요. 맞지 않는 공을 억지로 넣으면 고장 나요. 우리 아이 입 크기에 비해 공이 너무 작으면 삼킬 위험이 있어요.
- [ ] **전원:** 실외 고정형은 누전차단기가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배터리형은 들고 다니기 편하지만 한 번 충전으로 노는 시간이 짧아요.
- [ ] **방수:** 실외에 둘 거라면 방수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젖은 공은 부풀어 기계 안에 끼기 쉬우니 바로 빼 주세요.
- [ ] **센서 청소:** 렌즈에 먼지나 침이 묻으면 오작동해요.

관절을 지키는 사용법

- [ ] 잔디나 흙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에서 놀아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미끄러운 마루는 피하세요.
- [ ] 시간과 횟수를 정해요. 보호자들은 흔히 하루 10~15분, 20번 안팎으로 제한해요. 아이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양은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 [ ] 성장 중인 대형견 강아지와 노령견은 급출발·급정지 반복에 특히 조심하세요.
- [ ] 한여름엔 이른 아침이나 해 진 뒤에 놀아요. 바닥이 뜨거우면 발바닥을 데요.
- [ ] 남은 에너지는 산책과 노즈워크로 채워요. 몸과 머리를 고루 쓰게 해 주세요.

익숙해지게 하기

손으로 공을 넣는 모습을 몇 번 보여 주고, 아이가 스스로 넣으면 바로 간식을 주세요. 처음 며칠은 기계 소리에 놀라지 않는지 지켜봐요. 관심이 없는 아이에게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여러 마리라면 한 마리씩 따로 익히게 해요.

안전 수칙

- 발사구 앞에 얼굴이나 발을 대지 않게 하고, 발사 방향에 사람이 서 있지 않게 하세요.
- 보호자 없이 켜 두지 마세요.
- 공에 집착해 멈추지 못하거나, 놀고 나서 절뚝이거나 평소보다 오래 헐떡이면 시간을 줄이고 쉬게 하세요. 증상이 이어지면 병원에 가세요.

포근발자국에서 더 읽기

강아지 자동 볼 런처,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총정리 · dogdo209.com/dog-automatic-ball-launcher-guide

인쇄해서 쓰세요

1년 비용 계산표

후보 제품 두세 개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첫 결제 금액이 가장 싼 제품이 1년 뒤에도 가장 싸지는 않아요.

어떤 기기인가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한 문장)

항목	후보 A	후보 B	후보 C
제품명			
① 기기값			
② 월 구독료 × 12			
③ 소모품(필터·롤·패드·배터리) 1년치			
④ 설치·추가 부품(허브, 시공 등)			
1년 총비용 (①+②+③+④)			

함께 체크할 것

확인 항목	후보 A	후보 B	후보 C
KC 마크	☐ 있음	☐ 있음	☐ 있음
한국어 앱	☐ 지원	☐ 지원	☐ 지원
국내 A/S 창구	☐ 있음	☐ 있음	☐ 있음
정전 시 작동(배터리 백업)	☐ 됨	☐ 됨	☐ 됨
인터넷 없이 기본 기능	☐ 됨	☐ 됨	☐ 됨
구독 해지 후 남는 기능			
소음(dB 표시·후기)			
분해 세척	☐ 쉬움	☐ 쉬움	☐ 쉬움
보증 기간			

인쇄해서 쓰세요

우리 집 펫테크 관리 기록지

기기를 들인 날 바로 적어 두세요. 냉장고나 현관 옆에 붙여 두면 교체일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이름 _____

동물등록번호 _____

기기	구입일	세척·필터 주기	배터리 교체	구독 갱신일	A/S 연락처
자동급식기		주 1회 세척			
급수기		필터 2~4주			
홈캠		비밀번호 변경일:			
GPS 트래커					
웨어러블					
펫도어					
온열 매트		전선 점검:			

정기 점검

- ☐ **매주:** 급식기·급수기 세척, 배변판 바닥 닦기
- ☐ **매주:** 트래커·웨어러블 착용 부위 피부 확인
- ☐ **매달:** 앱·펌웨어 업데이트 확인
- ☐ **매달:** 전선 피복과 씹힌 자국 확인
- ☐ **철마다:** 냉감·온열 매트 교체, 보관 전 완전 건조
- ☐ **이사·번호 변경 시:** 동물등록 정보 30일 이내 변경

인쇄해서 쓰세요 · 현관문 안쪽에 붙여 두기

외출 전 점검 카드

기기가 많아질수록 기기가 멈췄을 때의 대비가 중요해져요. 오래 집을 비우기 전에 확인하세요.

나가기 전에

- [ ] 급식기 사료 채움, 배터리 백업 확인
- [ ] 급수기 옆에 일반 물그릇 하나 더
- [ ] 홈캠이 켜져 있고 화면이 잘 나오는지
- [ ] 트래커 충전 완료
- [ ] 펫도어 잠금 시간대 확인
- [ ] 온열 매트 타이머 또는 끄기
- [ ] 바닥의 작은 장난감·전선 정리

정전·인터넷이 끊기면

- [ ] 급식기 예약이 남아 있는지 앱 재접속 후 확인
- [ ] 홈캠 재연결, 끊긴 동안의 녹화 확인
- [ ] 펫도어 열림/잠김 상태 확인
- [ ] 여름엔 실내 온도, 겨울엔 난방 확인
- [ ] 오래 끊기면 가까운 가족·이웃·돌봄 서비스에 연락

비상 연락처

다니는 동물병원 (이름, 전화)

가까운 24시 동물병원 (이름, 전화)

집에 들러 줄 수 있는 사람

돌봄 서비스 연락처

관리사무소

동물등록번호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세요

- 심한 헐떡임, 붉거나 창백한 잇몸, 비틀거림(열사병)
- 배가 부풀고 헛구역질만 반복할 때
- 쓰러짐, 경련, 숨쉬기 힘들어할 때
- 작은 부품·전선을 삼켰거나 씹은 흔적이 있을 때
- 5분 넘게 눌러도 멈추지 않는 출혈
- 화상이 의심되는 피부 변화

참고 자료

이 가이드의 바탕이 된 자료

2026년판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규정과 제품 사양은 바뀔 수 있으니, 이 가이드와 공식 안내가 다르면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포근발자국(멍냥뉴스 동네방네) 펫테크·용품 글

자동급식기(2026.9.5) · GPS 트래커(9.5) · 홈캠(9.5) · 활동량·수면 트래커(9.6) · 분리불안 자동 장난감·퍼즐 토이(9.7) · 스마트 급수기(9.8) · 소형견 실내 배변판(9.9) · 자동 볼 런처(9.18) · 드라이룸(9.20) · 스마트 펫도어(9.22) · 냉감·온열 매트(9.24) · 헬스케어 웨어러블(9.26). 모두 dogdo209.com 펫테크·용품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 안내

- 관계부처 합동,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2024.11): 비밀번호 변경, 펌웨어 업데이트, 미사용 시 전원 끄기 수칙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및 서울시 안내: 동물등록 변경신고(30일 이내), 분실 신고(10일 이내)
- 국내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및 무선기기 전파 적합성평가 제도

해외 참고 자료

American Kennel Club(냉감 매트) · Preventive Vet, VCA Animal Hospitals(퍼즐 토이·급여 장난감) · 그 밖에 각 원문 글에 표기된 해외 반려동물 용품 가이드

> **포근발자국을 소개해요**
>
> 포근발자국은 멍냥뉴스 동네방네(dogdo209.com)에서 반려가족에게 필요한 공공기관 소식, 지원금·혜택, 법·제도 변화, 안전 경보와 생활 정보를 쉽게 풀어 전해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이 가이드에는 특정 브랜드가 나오지 않아요.

© 2026 포근발자국 · dogdo209.com. 구독자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으며, 무단 전재와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전자책은 일반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